

“주한 러시아 군사교관단(Русские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1898 гг.)” 활동보고서 해제

沈 憲 用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자료 해제
- “주한 러시아 군사교관단(Русские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1898 гг.)”
  - 러시아 군사교관들이 교육하기 이전의 조선군
  -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조선군 교육
  - 제2진 군사교관단의 교육과정

## 1. 자료 해제

이 발굴자료는 두 차례에 걸쳐(제1진: 1896년 10월 9일, 제2진: 1897년 7월 17일) 조선에 들어온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는 제1진으로 들어와 훈련대 교육대장으로 활동한 아파나씨예프 1세(Афана сьев 1-й)와 제2진으로 들어와 마찬가지로 교육대장으로 활동한 N. 그루진 스키이(Н. Грузинский)가 자신들이 수행한 조선군 훈련 및 교육내용을 수 기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1898년 귀국하여 하바로프스크 소재 연아무르군관구 참모본부에 “주한 러시아 군사교관단(1896~1898)”이란 제 하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그 해 출판되었다.

러시아 군사교관단 활동보고서는 3개의 장(1장: “러시아 군사교관들이 교육시키기 이전의 조선군”, 2장: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조선군 교육” 그리고 3장: “제2진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군사교관단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1부를 크게 생략하고 2부와 3부 중심으로 번역, 게재하였다. 번역본은 러시아군역사문서보관소(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7) 소장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상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성과들<sup>1)</sup>은 국내 일차사료, 즉 『고종실록』이나 『관보』 혹은 『독립신문』 등의 자료에 근거하면서도 역사적 사실기술에 의미를 두는 정도였다. 보다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상에 대한 연구는 교관단 활동의 직접적 주체인 러시아와 당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영국 등의 보고서에 근거한다. 러시아 재무부는 1900년 대조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써 『Описание Кореи(韓國誌)』를 간행하였다. 여기에서 러시아는, 비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군사교관단의 규모와 교육활동 내용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당시 주한 영국총영사인 조단(J. Jordan)이 메르세 대위(Captain Mercer)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에 대한 조사보고서(F. O. 405, Part X, Further Correspondence Relating to Corea and China, and Japan)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 자료

1) 이선근, 『한국사-현대 편』(진단학회, 1963); 고병익, 「로황 戴冠式에의 使行과 한로교섭」(『역사학보』 28, 역사학회, 1965); 이현중, 「아관파천」(『韓國史』 18, 1981).

는 러시아 군사교관단 활동이 전개되는 당시의 직접적인 관찰기록으로서 가치가 크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진척되어 왔다.<sup>2)</sup>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교관단 활동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러시아 측 자료인 교관들의 보고서나 수기, 기타 관련문서 등은 아직까지도 소개되지 않아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이번 발굴, 번역하게 된 자료는 제1진과 제2진 군사교관단원으로 파견되어 교육대장으로서 조선군을 직접 훈련시켰던 러시아 장교-교관들이 자신들이 수행한 과업을 일일보고서 형식을 빌어 직접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자료는 기존의 러시아 군사교관단에 대한 연구성과에서 미진했던 많은 부분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도 밝혀 주고 있어 학계의 커다란 반향이 예상된다.

제1차 러시아 군사교관단 일행은 1896년 10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군사교관단은 뿌짜파 대령을 단장으로 하여 아파나씨예프 1세 중위와 꾸지민 중위(두 달 늦게 입국함), 그리고 1명의 군의관과 10명의 부사관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공식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군의 현황과 식량, 의복 및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조선정부는 당시 친위대 인원 2,200명을 모두 훈련 대상으로 해줄 것 그리고 이들 중에서 선발하여 각 도시의 경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군사교관단은 예정 훈련대상 인원인 800명으로 훈련대를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동의받아 마침내 (821명의 병사를 선발하여) 훈련에 돌입하게 된다.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조선군 훈련은 차렷자세나 경례자세 등

2) 러시아 탁지부의 자료는 198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이 『韓國誌』로 번역 발간하였다. 기타 러시아군사교관단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철구, 『한말 고병군사교문(교관)이 군부지도층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사회과학연구』(영남대), 1981); 권희영, 『아관파천과 한로관계』(『한민족과 북방과의 관계사 연구』, 1995);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혜안, 2000); 이민원, 『19세기말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과 역할』(『군사』 44호, 2001); 이민원,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국학자료원, 2002).

제식훈련에서부터 대오짓기, 소총조작법, 총검술, 조준법 그리고 부대(근무)규율 학습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언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론 교육 대신 몸동작과 얼굴 표정으로 교육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장교와 부사관들 역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훈련을 받았다. 조선병사들은 대체로 허약하여 쉽게 피로해 했으며 줄 맞추기도 힘들어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훈련에 임하여 교관단장이 보기에 매우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

12월 9일부터는 궁궐 경비에 투입될 수 있도록 12월 초부터 보초근무 훈련이 실시되었다. 궁궐 내, 외곽을 경비하기 위한 이 훈련은 미리 작성된 보초근무 규율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초막사가 있어 그 내부에는 보초일람표, 보초계획, 보초병, 위병사령, 보초 부사관, 보초장 등의 임무가 조선어로 적혀 있었다. 러시아인 부사관은 선임자로 취급되어 조선인이 당직 보초장이라 하더라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보초를 배치하고 군호를 작성하는 러시아 장교에게만 복종하였다.

고종은 1897년 2월 8(20)일에 환궁하였다. 그러나 국왕은 환궁 보름전인 1월 20~22일에 국왕은 궁궐에서 3박 4일간의 밤을 지내기도 하였다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때 교관단장의 지시로 러시아인 장교 1명과 부사관 2명이 추가로 투입되어 순번대로 밤새 경비를 강화하였다.

사격훈련은 2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두 달 조금 넘게 실시되었다. 2개 중대씩 매일 도심지에서 떨어진 사격장까지 다니면서 실시된 사격훈련의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 결과 5월 5일에 프랑스 장교들을 배석한 가운데 실시된 사격시범에서는 200보 사격에 47%, 500보 일제사격에 32%의 성공률을 가져와 참석한 외국장교들을 크게 감동시켜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성과를 토대로 5월 20일에는 국왕을 모시고 사열식을 거행하였다. 사열식에는 기계체조, 총검술, 거총법, 중대훈련과 행진, 제자리 사격과 이동간 사격 등이 중대별 순서대로 시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모든 중대가 하나의 대대로 집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모든 시범

은 조선인 장교의 러시아어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장면은 일찍이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장관으로서 국왕의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 국왕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휴가와 상훈으로서 포상하고 중대장급 이상의 장교들에게 양반의 신분을 하사하였다.

제2진 러시아 군사교관단은 7월 17일 제 1진과 동일한 규모인 13명이 들어왔다. 이미 6월부터 제2경비대대를 구성하기 위한 병사선발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5일부터 훈련병 선발이 이루어졌다. 조선 군부는 이들을 곧바로 교육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관이 부족하고 병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교육준비가 부족했으며, 더욱이 뿌짜따 교관단장과 교관 아파나씨예프 1세가 빼제르부르크로 떠났기 때문에 자연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9월 15일 훈련병을 선발하라는 국왕의 명령이 하달되어 선발된 991명의 병사와 일부 부사관이 선발된 예산장부가 작성되었고 9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실시되었다. 각 중대는 1명씩 배치된 러시아 부사관이 대략 200명의 훈련병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제1경비대대에서 이미 훈련과정을 마친 조선인 부사관 2명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교육 내용은 제1진에서 실행한 내용과 동일하게 러시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상이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밝혀진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제2진 교관단의 입국 사실과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부대 편성 내용이 제1진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음을 정확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종이 환궁 이전에 3박 4일(1월 20~22) 동안 궁궐에서 묵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요망된다. 이 자료는 또한 대대 운영의 투명성과 경비질감, 급료착복 내지 뇌물수수 행위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당시 조선군 실상에 대한 진솔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적 기록에 의존하다보니 일부 통계숫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드러나 논란의 소지는 있다. 이는 새로운 자료가 계속 발굴, 연구되어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를 남기지만, 물론 그렇다고 이 자료가 갖는 의의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하 번역문)

## 2. “주한 러시아 군사교관단(Русские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1898 гг.)”

### (1) 러시아 군사교관들이 교육하기 이전의 조선군(корейское войско до обучения его русскими инструкторами)

서울에는 5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보병 3,325명, 기병 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896년 8월 달(이하 露曆<sup>3)</sup>)에 개교된 군사학교에는 33명의 훈련병이 있었다. 이들은 국왕의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이 군사학교의 훈련병들은 흐멜레프 중위(Хмелев, 러시아 공사관 수비를 맡고 있는 해병대장)의 명령에 직접 복종하였다. 군사학교 업무는 흐멜레프 중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선인 장교가 7명이 담당하였다. 군사학교는 러시아 공사관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33명의 훈련병과 한 명의 통역자를 고용하기 위해 국왕의 사비가 매달 200달러씩 제공되었다. 물품공급업자에게도 비용이 지불되었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밥과 김치(발효된 배추와 무우) 그리고 국이었는데 하루 세 번 제공되었다.

훈련병들의 제복은 검고 푸른색의 짧은 윗도리로서 앞은 단추로 여몄다.

3) 러시아 구력과 신력의 날짜 차이는 12일이다.

바지는 장화 안에 넣지 못할 정도로 넓었다. 검은 천으로 만든 투구 위에는 쇠구슬과 꽃잎 모양의 오화관(李花章 - 역자) 모표(코카르다)가 달려 있었다. 오화관이란 오얏꽃<sup>4)</sup> 모양으로 만든 하얀 금속제품을 말한다.

조선군은 베르당(Бердан) N2 선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떨 빵은 하단의 조립식 고리(у нижнего раздвижного кольца)에는 잠금쇠가 있는 일본제였기 때문에 총검술(фехтование)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었다. 소총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걸려서 그냥 던져 넘겨야 했다.

훈련병들은 바닥 밑으로부터 따뜻하게 되는 온돌방의 칸(1 1/2 입방 사센<sup>5)</sup> 크기의 방(間) - 역자)에 배정되었다. 소총은 세로로 세워 두었다. 훈련병들은 날마다 표를 받아 집에 다니며 쉬었다. 그러나 이들 훈련병은 제복이 아닌 조선식 평상복(корейский штатский)으로 다녔다. 학습시간에는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핑계삼아 몇 일이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훈련병 중에서 당직자가 매일 임명되었다. 병영 내 내부 정돈을 시작하면서 각 칸에서는 감춰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의복은 정리되어 있어야 했고, 선조총도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했다. 담배는 꼭 책임자가 있을 때에만 피우도록 하였으나 아직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교육은 11시와 2~4시 사이에 하루 두 번 실시되었다. 훈련병에게 교육을 진행시키는 일은 호멜레프 중위가 담당하거나 조선 장교 중에서 우수한 자가 맡았다.

벌써 훈련병 중에 몇몇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호멜레프 중위의 요청에 따라 장교로 임관되거나 곧장 2계급 특진되기도 하였다.

4) 오얏(李)이란 자두의 원종으로서 꽃 모양이 서로 유사하다. 본문에서 이화장의 꽃을 러시아어로는 вишня, 즉 체리로 번역되었으나 오얏꽃에 대한 정확한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한 채 옮긴 듯하다. 일반적으로 오얏꽃과 자두꽃은 서로 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 전문 서적에서도 자두꽃으로 적고 있으나 이씨 문중에서는 이를 오얏꽃으로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도 오얏꽃으로 한다.

5) 사센(сажен): 미터법 체용 이전의 러시아 길이의 단위로서 약 2.134미터 정도이다.

호멜레프 중위는 군사학교를 조직하는 일을 맡았는데, 학교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교 결원을 보충하였다. 이 때 조직된 조선군의 대대조직은 <표 1>과 같았다.

조선군 대대는 4개의 중대로 나뉜다. 중대는 다시 2개의 소대로 그리고 소대는 2개의 분대로 나뉘었다. 부사졸(нижние чины)<sup>6)</sup> 중 550명의 일반 병

<표 1> 조선군의 대대조직

구 분	조선군 1개 대대의 구성 상황
장 교 (офицеры)	대대장(소령): 參領(чам-ен)-----
	중대장(대위): 正尉(чем-уй)-----
	병참장교(대위): 餉官(ханкоан)-----
	부관(대위): 副尉(пу-уй)-----
	소대장(мл. оф., со-таа-тян)(계급에 따라 副尉와 參尉)----- 1
계	20
부사졸 (нижние чины)	상사: 正校(чен-кю)(중대 4, 서기 1, 경리 1) -----
	副校(старший унт-офицер, пу-кю) -----
	병참부사관: 副校(пу-кю) -----
	서기: 副校 -----
	參校 -----
	선임 통신수(старший сигналист): 副校-----
	통신병(сигналист рядовой) -----
	장교 傳令(вестовой) (대대본부 6, 병참장교 3, 중대본부 2, 부관 2, 소대장 1) --- 34
병참장교에 달린 근무병-----	
부대원(строевый рядовой) -----	
계	665

6) 부사졸(нижние чины)이란 표현은 부사관(과거 하사관)과 일반 병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장교와 비교하는 개념으로 일반 병사들과 구분되어 사용될 때에는 부사관(унт-офицеры)이라 적었다.

사 중에서 과반수 이상(250~290명)은 출장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 출장 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 명단에 잡힌 나머지 인원조차도 집에 머물면서 대대본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만큼의 급료를 지불받고 있다. 그러나 부대 검열이 있을 때에는 즉각 나타나야 했다. 제3대대에는 동학(тонхак) 군 진압 차 파견 나간 거의 모든 인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중략)

## (2)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조선군 교육(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русскими инструкторами)

첫번째 군사교관단 일행(первая партия инструкторов)은 육군 중위 아파나씨예프 1세(Афанасьев I-й), 육군 소위 썩스젤리(Сикстель), 군의관 1명 그리고 10명의 하사관으로 구성되어 1896년 10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교관단 대표로는 뻬제르부르크 총참모부의 대령 뿌자따(Пуятта)였다.

현 시점에서 조선 군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현존하는 모든 조선군 부대원(약 2,200명)에 대한 교육을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 공사(посланник)이자 황제사절단장으로 온 고등문관(действительный статный советник) 베베르(Вебер)는 아직 상·뻬제르부르크로부터 공식적인 “통지”가 없다면서 즉각적인 교관단 활동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군사교관단이 활동할 공식적인 규정(положения)이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 교관단은 대령 뿌자따의 명령에 따라 조선 병사들의 현 실정과 그들의 식량, 의복, 근무상태 등을 살펴보고 간단한 기록을 해 두었다.

학습프로그램은 이미 작성된 상태였다. 이 학습프로그램에 따라 1개 대대는 800명으로 구성되어 다른 대대와 완전히 독립적인 부대로 배치되는 등 전적으로 러시아식(образ) 부대로 편성되었다. 나 아파나씨예프 1세는 대대 책임자(대대장)로 임명되었는데 장교와 교육부사관 학교(юнкерская школа)관리 그리고 장병교육과 부사관 선발 및 양성(подготовка(выбор) унт. офицеров)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부관으로 썩스젤 소위를 임명하였다.

조선 정부는 조선군 2,200명 모두를 훈련대상으로 해 주고, 이들 중에서 병사들을 선발하여 전국 각 도시의 도시 곳곳에 파견하여 보조병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정부는 러시아 교관단이 800명으로 부대를 편성하려는 것에 오랫동안 동의해 주지 않았다.

10월 15일 우리 군사교관단이 한성에 도착했음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집요하게 요구를 계속하던 조선의 군부대신이 이윤용(李允用, И ен-юн)은 마침내 800명으로 부대를 편성하는 데 동의하였다. 군부대신은 처음에 러시아의 제안에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지원자들 중에서 훈련병으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병사들이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왜 그런지 군부대신은 병사들로부터 발생될 반란을 매우 위협시하였다. 반면에 다른 고위 관리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거부하고 있었다.

10월 23일 제4대대와 제5대대에서 훈련병을 선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부대의 병영에 800명의 선발자들을 배속해야 했다. 지원자들은 많았다. 군 의관 체르빈스키(Червинский)는 외관상으로 하급 병사들을 살펴보고는 보다 젊고 건장한 자들을 선발하였다. 지원자 중에는 안구에 트라호마(трахома, 과립성 결막염)를 심하게 걸린 사람이 많아 모두 선발에서 제외시켰다.

제4대대에서 200명, 제5대대에서 280명을 선발하였다. 이들 중에서 제5대대 선발자들이 보다 훌륭하고 젊었다. 연병장에서 바로 선발 명단을 작성하였고 군부대신은 선발된 병사들의 넓은 바지 허리춤에 붉은색 직인을 찍어주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부대원과 혼동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군사교관단으로부터 훈련받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방지하려 한 목적도 있었다. 많은 병사들에게서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훈련병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어떤 병사는 완전히 신들린 것처럼 있었고, 또 다른 병사 역시 혹시나 선발되지 않을까 매우 기대에 차 있었다.

10월 24일.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에서도 훈련병들이 선발되어 제4대대와 제5대대의 병영으로 이송되었다. 제1대대에서 100명, 제2대대에서 100명

그리고 제3대대에서 141명이 각각 선발되었다. 이들 모든 선발자들의 명단 역시 작성되었고 바지 허리춤에 직인마저 찍어 주었다. 군부대신은 특별히 제1대대에 대한 직인을 강조하였다. 그는 심지어 선발자들의 등에다가도 직인을 표시하라고 지시하였지만, 뿌짜따 대령은 이를 반대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에서 선발된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에 따라 선발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 소지는 없어 보였다.

러시아 교관장교들은 부사관(унт-офиц.)에게까지 80명씩의 훈련병이 배치되어야 했으므로 많은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기가 질렸다. 더욱이 훈련병들과는 서로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전체 801명<sup>7)</sup>의 부사졸들은 곧바로 개별 대대로 배치할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군부대신은 혹시나 발생할 어떠한 난제나 제약조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제1대대와 제2대대 그리고 제3대대에서 선발된 부사졸들은 그들이 훈련을 받을 제4대대와 제5대대의 연병장에서 약 2베르스타(露里)<sup>8)</sup> 정도 떨어져 있어서 매일 이동해 가야 했기 때문이다. 군부대신은 하루에 한 번씩만 병사들을 이동시키자고 했으나 뿌짜따 대령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여 하루에 두 번씩 이동시켰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나타난 훈련병은 전원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중대장으로부터 휴가를 받아 떠났고, 또 다른 사람은 병이 났으며, 그 밖의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셨다. 따라서 “(러시아) 부사관의 허락없이 어느 누구도 아무데도 보낼 수 없다”는 원칙을 오랫동안 실행해야 했다.

10월 25일부터 11월 첫째 날까지는 모든 시간을 교관이 훈련병을 대면하는데 할애하였다. 훈련병 명단이 러시아어로 작성하였으며 허리띠와 바지 등 복장을 제대로 갖추도록 교육시켰다.

이 모든 일들이 어렵게 완성되어 갔다. 왜냐하면 서툴게나마 러시아어를

7) 800명의 오기인 듯하다. 그러나 각 대대에서 선발된 인원을 모두 합하면 821(100+100+141+200+280)명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8) 미터법 시행 이전 러시아의 옛 거리 단위 1.067km(=500 сажен).

할 줄 아는 조선인 장교가 1명뿐이었기 때문인데 이 한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었겠는가? 훈련병들에게 찡그리는 얼굴 표정과 몸동작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켜야 했다. 나는 호멜레프(Хмелев) 소위로부터 33명의 훈련병을 받아들여 매일 러시아어 수업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제4대대의 경우 한 명의 당직자를 남겨 두어 조선어로 번역된 나의 전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당직 사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모든 장교들도 처음에는 일반 훈련병들과 같이 공통된 규율을 지키도록 하였다.

11월 1일부터 훈련과정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관이 차렷자세(стойка)와 경례자세(отдание чести)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교관들은 의기소침해 하지 않고 얼굴 표정과 몸동작을 수단으로 노력하여, 첫째주 주말에 이르러서는 이들 훈련병들을 이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론교육(словесные занятия)은 (통역자가 없어) 연기시켜야 했고 그 시간에 제식훈련(строевые занятия)으로 대신하였다. 나는 첫째 주에 교육부사관, 장교들과 같이 예정된 학습계획을 모두 마칠 수 있었지만 다소간 훈련병들의 배를 집어넣게 하여 줄을 맞추도록 하여야 했다. 훈련병들은 구령 “차렷(смирно)”을 이해하지 못해 벌을 받기도 하였다.

일주일의 지난 후에 모든 부사관-교관들은 목소리가 쉬었으나 대열(строй)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비록 몇몇은 (어느 교관의 표현에 따르면) “약삭빠른” 행동, 즉 부사관-교관이 접근할 경우에 허리띠를 동여 메는 눈속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단히 허리띠를 메고 있었다. 배를 불룩 앞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단단히 허리띠를 메는 일이 조선인들에게는 버거웠지만 이들 모두는 배 위로 허리띠를 메려고 노력하였다.

조선 병사들은 대체로 허약했다. 10분간 “차렷(смирно)” 자세로 서 있어도 곧 피곤해 했다. 그러나 모든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였다.” 병사들은 웅크리고 앉아서 쉬었다. 병사들에게 무언가 다음과 같은 것, 즉 “원기를 회복시키는 일”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대열(строй)에서의 이탈은 엄히 금한다는 것 그리고 흡연은 금지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다. 만일 누군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교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일주일의 끝나갈 무렵 나와 썩스젤(Сикстель)은 지난 일주일 동안 훈련병들이 배운 사항이 무엇인지를 뿌자따 대령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점검하였다. 부사졸들 대부분은 명령을 암기해야 했다. 모든 명령은 조선어<sup>9)</sup>로 적어 주었다. 훈련병들은 체조 순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했지만 이들은 모두 조선어로 명령이 적힌 종이쪽지를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암기되었다: аты(один, 하나), ты-па(два, 둘), трли(три, 셋), ч етырли(четырь, 넷), пяти(пять, 다섯), сести(шесть, 여섯), семи(семь, 일곱), посеми(восемь, 여덟), тепяти(девять, 아홉), тесяти(десять, 열). 그리고 구령은 다음과 같이 발음되었다: “симирино(смирно, 차렷)”, “полино(в ольно, 쉬어)”, “напырапо(направо, 우향우)”, “налепо(налево, 좌향좌)”, “Г олопы пьше(голови вьше, 고개들어)”, “руки паза(руки назад, 열중 쉬어)”. (비록 발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어도 훈련병들은 - 역자) 구령에 따라 올바른 동작자세를 취했다. 훈련체조(практическая гимнастик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두 번째 주부터는 통역자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1명의 훈련병(훈련 부사관)이 도착했다. 진지한 교관들 덕분에 훈련 작업은 잘 진척되어 갔고, 통역자들 덕분에 이론교육(словесные занятия)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교육에서 모든 내용은 조선어로 작성되었으며 필요한 내용에 대한 번역이 끝난 후 교관들에게 전달되는 등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갔다.

우리 부사관-교관들은 조선인 훈련병들의 두발상태에 매우 난감해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훈련병 머리에서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훈련병들에게, 머리 위에 부스럼은 몸이 더러워 발생하는 것이니, 만일 머

9) 한글이란 말이 대중화된 것은 주시경 선생의 주창 이후이다. 그런데 그 이전의 훈민정음은 언문으로 명칭되고 있었으나 본서에서는 그냥 조선어로 사용키로 한다.

리를 짧게 깎고 자주 감게 되면 부스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에 따라 약 절반의 부사졸들이 머리를 짧게 깎았고 그에 따라 병사들의 (위생상태는) 훨씬 좋아졌으며, 부스럼은 다행히도 아물어 갔다. 많은 장교들 역시 머리를 짧게 깎기 때문에 머리 위의 더러움이 깨끗해져 갔다. 이러한 현상은 병사들에게도 일어났다.

조선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성적으로 행동했다. 비록 우리가 말해 주고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모두들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해 주었다. 대열(строй) 중에는 꾸물대는 일이 많아, “꾸물대지마(не шевелись)”, “머리 위로(головы выше)”, “열중 쉬어(руки назад)”라는 구령 소리만이 들렸다.

경비근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습득되어 갔다. 말로만 설명된 근무요령이 훈련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무 중에 잡담하는 자가 많았다. 나는 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처벌을 가했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를 나타내 근무 중 잡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훈련병 중에는 게으른 자가 많았고 버릇이 심하게 나쁜 자들이 적지 않았다.

11월 1일 단지 하루만 대열에 서 보았던 장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렷자세(стой ка)와 부동자세(держание себя в строю)에 있어서 짧은이 못지 않게 앞서 나갔다. 이들은 소총을 다루거나 총검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습득하였다. 그러나 훈련병들은 대오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어렵게 이해하였다.

한 주가 지나고 장교들에 대한 검열도 끝나가자 나는 학습과정을 참관한 뿌짜파 대령의 허락을 받아 장교들을 교관(집단)으로 임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체조시간에 장교들이 참석하고 대오짓기, 소총조작법 그리고 실질 조준법 등을 실질적으로 익히도록 하였다.

부사졸들은 소총(선조총)의 조립과 분해 그리고 청소를 매우 잘 익혔다. 그러나 소총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힘겹게 암기하였다. 설명을 너무 많

이 하다보니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가끔은 오후 학습이 약 6시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주가 끝나가면서 뿌자따 대령은 지난 학습의 경과를 살펴보고는 그 성취에 놀라워했다. 훈련병들의 행진은 독특하게 진행되었으나 나름대로 완성되어 가는 듯 보였다. 구보 역시 훌륭히 해내어 더 이상의 요구는 불필요했다. 지난 2주간의 학습 성과가 훌륭했다고 파악한 뿌자따 대령은 훈련 병사들에 대한 훈련계획을 빨리 추진해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12월 1일까지는 훈련병들이 하루에 한시간씩 우리 부사관들을 돕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나는 훈련받고 있는 장교들을 특별히 더 훈련시켜야 하였다.

총기는 병사들에게 다소 무거웠기 때문에 5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야 했다.

일요일에는 교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몇몇 사람들에게 휴가를 보내주었다. 경계근무 규정(устав гарнизонной службы)이 번역되었다. 번역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번역자가 북부지방 출신 주민이어서 씩 좋게 번역되지 않은 관계로 몇 차례에 걸쳐 다시 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거총법(прикладка), 조준법(прицеливание) 역시 훌륭히 습득되었다. 그러나 손으로 조준하는 것은 잘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손이 약했고, 둘째 아직 눈에 익숙지가 않아 가늠쇠가 평평한 지의 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에 소총을 한 손으로 드는 연습을 시켰더니 몇몇은 아주 자유로이 총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개머리판은 나무로 만든 것이어서 그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위 썩스젤(Сикстель)로 하여금 병사들이 매일 거울을 통해 조준검사를 하도록 했다.

훈련에 필요한 모든 필수 교보재(приборы)와 표적(мишени)을 자체 제작하거나 혹은 부사관이나 부사관-교관이 만들었다. 용수철을 넣은 탄약함(пружинные патроны)은 공장에서 묶음으로 25개씩 공장에서 만들어 왔다. 사격 연습을 위한 교보재는 러시아에서 교관들이 들여왔다. 산탄사격용 교보재(приборы для стрельбы дробинками)가 5벌 있었는데, 이에 맞춰 교육시간을 조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소총수들은 참을성 있게 사격연습을 잘 하였다.

12월 9일까지는 부사졸들이 궁궐경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 덕분에 모든 시간이 경비근무에 집중되었다. 궁궐과 초소에 대한 약도가 작성되었고 그 초소에 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소총조작법(ружей ные приемы), 총검술(фехтование), 거총법, 조준법 등은 거의 습득된 상태이고, 대열 중의 꾸물거림은 훨씬 줄어들었다. 꾸물거리는 데 대한 벌칙이 주어졌는데, 총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조선인 장교에게 벌칙 집행 권한을 주었으나 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뿌짜따 대령의 허락을 받아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러시아 부사관(унт-офиц.)의 기숙사 앞에서 총을 들고 서 있는 벌칙을 주었다.

체조훈련(практическая гимнастика)도 처음에는 숙달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몇몇 동작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치는 것 등 곤경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11월 23일 뿌짜따 대령은 시찰 후 부사졸들이 완전히 훈련에 숙달된 것으로 보고 12월에는 각 경비초소에 병사들을 배치하여 경비근무에 내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2월 1일부터 날마다 초병통지에 따라 보초자가 정해졌다. 2개 집단으로부터 보초병이 초소마다 배치되었고 이들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한 다음 해산시켰다. 그러나 저녁 학습시간에 임할 때는 다시 2개 집단으로 뭉치게 했다.

<표 2> 초소 숫자와 궁궐 내곽 보초 구성

러시아인 부사관 -----	1	조선인 당직 장교(중대보초) -----	1
조선인 장교(보초장) -----	1	통신수 혹은 교수 -----	1
보초부사관 -----	1	위병사령(부사관) -----	3
전령 -----	2	2인 초소(2명의 부사졸) -----	12
1인 초소 20 -----	00	야간 초소 -----	3
계 : 1명의 러시아 부사관		2명의 조선인 장교	
4명의 교육부사관(юнкер)		78명의 부사졸	

<표 3> 공궐 외곽 초소의 구성

러시아인 부사관(보초장) ----- 1	조선인 교육부사관(위임보초장) ---- 1
조선인 보초 부사관(교육부사관) - 1	위병사령(교육부사관) ----- 2
전령 ----- 2	2인 초소(2명의 부사졸) ----- 12
1인 초소 12-----	
계 : 1명의 러시아 기간장교 2명의 조선인 교육부사관 55명의 하급병사	

<표 4> 공궐 내부 초소의 구성

보초장(보초 부사관) ----- 1	2인 초소(정문, 감옥) 부사졸 --- 6
捕卒(выводные к арестованным) -2	
계 : 1명의 부사관(조선인) 8명의 병사 = 9명	

<표 5> 일일 경비 근무자 수

러시아인 부사관 ----- 2	조선인 중대장과 소위(참위) ---- 2
조선인 훈련부사관 ----- 8	부사졸(통신수 포함)----- 12
계 : 154명	

초병들에게는 (규정에 정해진 인물의) 명령이나 초소 현장에 나타난 썩 짜따 대령이나 교관장교 그리고 러시아인 부사관들의 명령을 꼭 수행할 것을 주의시켜 주었다.

조선인 장교들은 경비근무에 숙달되도록 보초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초소에서 러시아인 부사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보초 당직 중대장은 보초 근무 중인 초소의 보초병들을 감독하도록 임명 받았지만 러시아 부사관들의 경우 선임자로 취급되어 당직자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 러시아 부사관들은 다만 이들은 보초 배치를 담당하고 군호를

작성하는 러시아 장교에게만 복종하였다. 교육부사관(юнкер)은 경비근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론적으로 더 공부했기에 뿌짜따 대령은 이들을 2달에 걸쳐 위병사령이나 보초 부사관, 보초장 등으로 임명했으며, 조선인 부사관을 2인 초소 내지 보다 책임이 강한 1인 초소에 근무토록 하였다.

통역자들이 마침내 도착하였다. 당시 이들은 모두 10명이었는데 부사관(унт-офицеры)에 1명씩 배치되었다. 교육부사관에 11명제의 통역자를 배치하였는데 러시아말을 할 줄 아는 (조선인) 장교 2명과 부사관 1명이 더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초소에는 1명씩의 통역자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이 보초병과 같이 초소 내에서 근무하였다.

탄약함(патронные сумки)은 전래의 조선식에서 러시아식으로 개조했는데 단지 24개만을 만들 수 있었다. 궁궐에는 초소 건물로서 궁궐 내곽 남쪽 대문에 하나, 궁궐 외곽 서문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건물 바닥을 조선식으로 만들었다. 조선인들은 반드시 모든 병사들이 군화를 벗고 초소건물로 들어가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뿌짜따 대령이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바닥을 개조할 수는 없었다.

초소 내부에는 연단을 만들어 놓아 종(鐘)을 설치해 놓았다. 그것은 유럽식의 좋은 종이 아닌 10 뿌드<sup>10)</sup>의 무게가 나가는 큰 조선 종이였다. 종을 치기 위해서는 타종막대기가 필요했다. 12월 9일 처음으로 궁궐경비를 위해 투입되었다(이때 국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파견해 있었기 때문에 궁궐은 비어 있었다).

궁궐경비에 나서기 전인 12월 5일에서 8일 사이 부사졸들은 다섯 개의 중대로 이동되어 각각 160명씩 조직되었다. 그리고 각 중대당 4명씩 모두 20명의 장교가 선발되었는데 이들 만이 초소에 드나들 수 있었다. 부사관 중에서 각 중대별로 소대장과 분대장을 임명하였으나 근무자들이 도시의 도처에 배치된 관계로 이들의 내부근무를 모두 감독할 수는 없었다.

경비근무에 배치된 때는 낮 12시로서 교관장교 한명이 주관하여 실시되

10) 옛 러시아의 중량단위로서 1 뿌드는 16.38kg이다.

었다. 이 일은 교관장들이 돌아가면서 수행하였는데, 밤중에 2번에 걸쳐 초소와 보초병들을 둘러보는 의무가 있었다. 교관들이 결제를 했으며, 통지문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일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다.

첫 번째의 세 개 초소(삼번제)에는 동일한 보초들이 동시에 자신들의 초소근무를 마무리하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초소의 임무를 받았다. 모든 보초들은 이렇게 순서에 따라 궁궐 내 모든 초소들을 돌면서 근무를 하였다.

모든 초소에는 러시아식 보초막사(будк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청색이나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장식되었다. 보초병의 겹옷은 가죽옷 대신에 솜으로 기워 만든 넓은 옷옷으로서 푸른색 면포로 겹감을 댄 것이었다. 그러나 소매는 검은 천으로 러시아식대로 만들었는데 두 손으로, 즉 급히 서둘러 만든 것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초소의 보초막사에 조선어와 러시아어로 초소번호(No.)나 위병사령관 번호(No.)를 적어 놓았다.

근무 초기 15일간(삼번제)에는 부사관 교관이나 일반 장교가 (보초병을) 배치하였는데 약 2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초소는 2시간 15분 내지 2시간 30분 간격으로 교대되어 3시경에야 숙소(дома)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위병사령 부사관은 곧바로 이 일에 익숙해지면서 자기 임무를 완전히 숙지하게 되었다.

위병 숙소에는 조선어로 적힌 초소 일람표(табель постов), 보초계획(план постов), 보초병, 위병사령, 보초 부사관, 보초장들의 임무 등이 걸려 있었다. 음식은 궁궐 내부에서 끓여 먹었으며, 보초 숙소로 배달되었다. 보초병이 있는 초소의 내부 정면에는 국왕, 세자, 군부대신 그리고 그들의 동료 등 모든 외국의 대표자들에게 대할 규칙들을 적어 놓았다. 그리고 처음 잠시동안은 보초병들이 이 규칙들을 빨리 그리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복을 한 뿌자따 대령이나 교관장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도록 하였다.

처음 경비근무를 실시했을 즈음 부사관들 중에서 잘못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초소에서 자면서 담배도 피웠고 떠들기도 하였으며 총을 내려놓기도 하였다. 이 모든 잘못된 행동을 한 자들에게 태형을 주려 하자 보초 교대시간에 실강이가 벌어져 다투기도 하였다. 경비근무는 단지 부사졸들만이 아니라 (조선인) 장교나 통역자들 모두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다. 부사졸들은 탈영하기도 했으며 보초 임명을 교묘히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여러 사람들 중에 아픈 척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는 조선 풍속에 따라 부사졸들이 자기 부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3일에서 7일까지의 보초 근무에 대한 면제를 허락받았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믿었지만 정말로 부모가 돌아가셨는지를 의심해야 했다. 이때 나는 장례를 치를 병사들에게 증서(запись)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였다. 얼마 후 12월 13일에서 18일까지 아버지 장례를 치른 제4중대의 한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오더니 (이제는) 어머니를 장사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락을 받고는 이내 표정이 밝아졌다. 나는 이 병사의 거짓말을 의심하여 이 병사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교관에게 명하였다. 조금 지나자 이 병사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부음을 들고 왔다. 이때 나는 허락을 해주어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관과 통역자가 동행토록 하였다. 두 세 시간이 지나자 이들 세 사람이 되돌아 왔는데 이 병사의 부모는 모두 건강하게 살아 계셔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그 부모의 아들은 휴가를, 그것도 오랫동안 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다른 중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음이 밝혀졌고, “부모 장례 불가”라는 엄격한 지시가 내려졌다. 죄를 지은 것으로 드러난 병사들은 1중대, 2중대(에서 1명씩 - 역자), 3중대에서 2명 그리고 4중대에서 1명이 엄한 태형을 받은 후 퇴출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장례를 핑계로 대는 일은 없어졌다. 궁궐 내곽 근무에 대해서 감시를 기울일 수는 없었으나 군부대신은 시종일관 모든 대대를 하나의 병영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12월 말경 또 한 명이 교관장교인 꾸지민(Кузьмин) 중위가

도착하였다.

경비대대와 경비를 방금 마치고 돌아온 중대들은 점심식사 후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대대원들은 세 중대씩 매일 순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였다. 꾸지민 중위는 훈련부사관과 더불어 교육에 임했으며 나 역시도 전 대대에 대한 통제를 가하면서 같이 참여하였다.

12월 23일 경비 초소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부대신이 올바르게 시정하지 않으려 하여 경비초소가 철거되었다. 경비초소의 바닥이 함몰되고 부서져 불을 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바닥이 무너져 내려선 안되겠기에 목재로 바닥을 만들거나 벽난로(камин)를 설치해 놓자고 했다. 그러나 군부대신은 이것이 조선인들에게 불편하므로 그리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우리가 경비초소를 없앤 조치는 군부대신에 영향을 주어 러시아 교관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었다. 12월 26일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다. 초소 바닥은 재정비되었고 벽난로가 설치되었다. 초소가 다시 지어졌으며 내부 1/3 크기의 판자 침상이 설치되었다.

1월달에는 추위로 인하여 거총법이나 행진법만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더욱 심한 혹한기에는 제1대대와 제3대대 사이를 산보하는 정도로 하였다.

군부대신은 자기에게 훈련받은 부사관을 보내 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아직 덜 배운 상태였고 단지 명령만을 내릴 줄 아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군부대신은 계속 자기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부사관은 이미 병사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이었다. 뿌자파 대령의 명령대로 나는 우리 부대에서 36명의 부사관을 선발하였다.

일반 병사 중에서는 약 34명의 병사들은 도무지 쓸모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경비근무에서 제외시켰다. 후에 4명이 추가로 제외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대로부터 모두 74명이 퇴출되었다.

1월 15일 대대로부터 최고 1,000명, 즉 중대별로 200명씩 선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선발작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체르빈스키 군의관의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 17세 이상 22~23세까지의 매우 젊은 사람을 선발했는데

이 중 11명이 통신수였다.

1월 20일, 21일 그리고 22일에 국왕이 궁궐에서 밤을 지냈다. 이때 뿌짜따 대령은 러시아 부사관들로 하여금 경비를 강화하도록 명령하여 부사관 2명 그리고 1명의 장교가 순번에 따라 밤새도록 궁궐을 경비하였다.

1월 26일과 27일 전체 대대가 제5대대 병영으로 이동해서는 제4대대의 칸(кан) 30개를 차지하였다. 2월 1일까지는 대대를 건설하고 칸에 따라 사람들을 배치했으며 신장순으로 정열(ранжировка)시켰고 소대와 분대로 나누었다. 부사관을 위병사령, 개별책임자(많은 이들이 최고 훌륭한 병사들 중에서 임명되었다.), 중대 상사(정위, фельдфебель), 보조병(дневальный) 그리고 당직자 등등이 선발되었다.

건물을 청소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내무규범은 조선어로 번역되었다.

이미 부사관들은 모두 머리를 잘랐으나 새로이 선발된 병사들은 군인 복장을 착용한 직후 머리를 잘랐다.

대대에서는 매일매일 부대별 당직 장교와 당직 하사관 그리고 소대별 당직자 그리고 4명의 보조병을 임명하였다. 한 소대의 보조근무에 인원이 모자라 다른 소대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당해야 했다. 신병들은 공정하게 각 소대별로 배치되어 부사관 교관에 맡겨졌다. 이들의 도움으로 이미 훈련을 받은 그러나 근무연한이 많은 하급병사들 중에서 우수한 병사들이 선발되었다. 러시아 부사관이 보조근무에 나서게 되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던 훈련병들은 다른 소대에 맡겨졌다. 신병 교육에 대한 검사 임무는 바로 썩스펠 소위에게 주어졌다.

병사교육(шереножное ученье)과 소대교육(взводное ученье)은 마무리되어 갔다. 검열을 마친 후 뿌짜따 대령은 중대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였다. 부사관 직위의 소대장은 명령을 잘 내리고 규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일반 병사들을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고 장기게임식 접수(шепечный прием)가 이루어지면서 장교와 훈련병들은 이제 모두 같이 8단계의

교육(восьмирядное ученье)으로 옮겨갔다. 나는 순서대로 중대장 중에서 한 명씩 나와서 지휘를 해 보도록 하였다. 이들은 비록 처음에는 미리 옮겨 적은 명령어를 잘못 전하기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습득하였다. 부사관 훈련생 중 12명은 중대별로 분산 배치되어 초급 장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는 국왕의 지시에 따라 교관들과 함께 다른 대대로 파견되었다. 국왕은 일본 부대를 러시아 부대로 바꾸고 전 병사들과 영관급 이하 장교들 모두가 단발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장교들 중에는 단발을 거부하기도 하여, 대대에서 3명의 장교가 헬멧을 쓰고 다녔다.

2월 8~20일<sup>11)</sup>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궁궐로 되돌아 왔다. 궁궐은 러시아교관이 가르친 대대가 맡았고 모든 부사관과 일반 장교들이 투입되었다. 일반 병사들은 러시아공사관에서 궁궐까지 도열병처럼 배치되었고 가마꾼에는 2명의 보초병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4중대에서 차출되어 러시아 부사관의 지휘를 받았다. 국왕의 요청에 따라 교관단 장교와 부사관들은 국왕 폐하의 거소(помещение)에서 멀지 않은 궁궐의 벽면에 위치해 섰다. 경비근무는 시작되자마자 익숙해졌고 보초병의 일반 임무를 거스르는 과실은 매우 줄어들었다. 아마도 조선인들은 엄격한 경비근무에 잘 적응해 가는 듯 하였다.

사격연습을 위하여 러시아식으로 만든 표적(мишень)과 조선 탄약 공장에서 제조한 공포탄 4만 6천명 분량을 배정받았다. 공포탄은 병영 근처에 위치한 연못의 정자에 숨겨 놓았다. 이 정자는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완전히 독립해 있었다. 따라서 이 곳에 숨겨진 공포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초를 임명하여야 했다.

2월 15일부터는 2개 중대씩 날마다 사격장까지 걸어갔다. 그 사격장은 도심지에서 약 3과 1/2 베르스타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그 도중에서 중대 교육이 진행되었고 사격장에서는 휴식 후 통신수의 마감작업과 사선 고르

11) 20일은 신력 날짜인 듯 하다. 즉 구력 8일은 신력으로 20일이 된다.

기 작업 그리고 다음 번의 사격연습 준비작업 등이 진행되었다. 귀환 길에는 병사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조선 노래만이 아니라 러시아 노래도 불렀다. 한 명의 통신수와 2명의 고수(鼓手)들은 이미 러시아식 행진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조선인들은 음악적 청각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

2월 20일에 이르면서 사격장에서의 연습은 마무리되어 사격거리 500보까지도 연습이 이루어질 정도로 성장했다. 새로 들어온 훈련병들이 첫째달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자 뿌짜따 대령은 이들을 보초 근무자로 임명하였다. 산탄 사격 연습은 단지 4번씩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뿌짜따 대령이 정해진 규율과 사격일정에 따라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2월 25일 전투 탄약으로 실시하는 사격연습이 시작되었다. 공포탄 사격은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내부 쇠편이 없는 탄약함이 웬일인지 세로로 열리지 않아 뚜껑을 떼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부사졸들이 사격과 사격 후의 총포반동을 매우 두려워했으나 점차 익숙해졌다. 사격 연습에 한명의 장교와 2명의 부사관이 매일 배석하였다.

사격연습은 4월 28일에야 모두 끝이 났다. 비록 사격연습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한번도 사격연습을 해보지 못한 조선인 병사들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 4월 3일 뿌짜따 대령은 신병들을 검열하고는 그들과 더불어 사격을 해 보았다. 4월 22일에는 신병들이 벌써 일반 대오를 따라 보초근무에 나서게 되었다.

중대교육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대대에 임명된 부사관은 장교로 임명되었다. 4월 말에는 <표 6>과 같이 장교단이 구성되었다.

<표 6> 참모 장교단 구성

대대장 -----	부관 -----
중대장 대리 -----	무기관리관 -----
병참관(경리관) -----	부사관(참교) -----
계 : 29명	

중대장들은 우리 부사관들의 유능한 참모가 되었다. 하급장교들은 대오나 부대에서 자신들이 서야 할 위치를 알고 있었다. 조선인 부사관들 역시 자신들의 위치에서 훨씬 훌륭해 보였다.

5월 5일 뿌자파 대령은 프랑스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개중대는 200보 거리에서 그리고 또 다른 중대는 500보 거리에서 조선인 중대장의 명령 하에 일제사격 시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사격결과는 기대 이상의 결과, 즉 200보 사격에서는 47%, 500보 일제사격에서는 32%를 기록하였다. 일제사격의 성과가 너무 좋게 나와 프랑스 장교들은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

사격 시범이 끝날 무렵 교관들의 요청에 따라 부사관과 참교들의 사격이 진행되었다. 대대에 구성된 부사관단은 <표 7>과 같다.

꾸지민 중위는 연병(строевые занятия)을 그만 두고 6월 1일까지 러시아어로 된 병참관련 책자를 모두 조선어로 번역하고, 모든 병사들의 신상기록과 성적을 작성하도록 지시받았다. 따라서 이 때부터 병참문제는 러시아 교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6월 1일까지는 대대운용을 위해 보다 유능한 물품청부업자를 찾아야 했다. 6월 28일까지는 대대가 국왕의 사열에 대비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국왕 사열은 외국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다. 중대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대대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야 했다. 제2중대 중대

<표 7> 대대 부사관단 구성<sup>12)</sup>

상사(정교, фельдфебель)(그 중 연장자는 서기)—————	6	나팔수 —————	10
부위(5명은 병참 부사관) —————	25	교수 —————	10
참모 나팔수, 부위 —————	1	보초병 —————	891
참위(서기 2명, 병참부 부관 5명) —————	47		
		계 :	990명

12) 원문에는 1,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990명의 오기인 듯하다.

장인 전우기(Тен у-ги)가 대대를 지휘하였다. 매일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의식행진이 실시되었다. 1명의 나팔수와 4명의 고수는 모든 학습을 다 이행한 자들로서 구보와 도보 행진에 따른 연주를 매우 잘 하였다. 5월 25일, 26일 그리고 27일에는 연병장에서 사열 예행연습이 진행되었다. 예행연습은 뿌차따 대령의 입회 하에 진행되었는데 대대연병과 대열건설(построение колонн) 그리고 사열행진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연병장에는 체조 기구인 사다리, 평행봉, 장대, 밧줄 그리고 사다리꼴 체조그네 등이 설치되었다. 기계체조는 매우 잘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신체가 강화되었고 즐거하게 되었다. 그네체조 동작 연습은 예술적으로 진행되었다.

5월 28일에 사열이 진행되었다. 국왕은 처음에 제5중대의 준비체조를 보았다. 그리고는 제4중대의 기계체조와 제3중대의 검도(총검술)와 거총법, 제2중대의 중대교육과 행진이 진행되었으며 제1중대의 제자리 사격과 이동 사격이 시범되었다. 다음으로는 모두가 하나의 대대대열로 집합하였다. 이 모든 교육과정이 조선인 장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러시아 상사(정교)는 한쪽 편에 서 있었다) 명령은 중대장 전우기(Тен у-ги)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대대연병과 사열 행진에 대한 검열은 구보와 도보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열 행사가 끝난 이후 모든 부사졸 병사들은 행사 당시 준비되었던 군복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휴가 명령이 내려졌고 부사졸들의 경우 순서대로 휴가를 갔다. 국왕은 상훈을 지급하여 우리 러시아 상사(정위)들에게는 20달러씩, 조선인 장교들에게는 은시계를 각각 지급하였다. 사열 중에 중대장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과 대대장 그리고 제2중대장은 양반의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 직위(гражданский чин)를 부여받았다.

6월경에는 비가 왔다. 따라서 교육은 오로지 병영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물론 구술강의만 진행되었다.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대대는 헛간을 개조해 만든 새로운 병영(과거 전 환국 터(монетный двор))으로 이전하였다. 이 곳은 미국인 고문 닌스테드

(F.J.H. Nienstead)<sup>13)</sup>가 건설했다. 병영은 매우 동그렇게 지어졌는데, 대대를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곧 이에 익숙해져야 했다.

새로 지은 병영으로 이전하자마자 곧바로 물품 공급이 시작되어 대대 운용의 토대가 되었다. 물론 군부대신이나 전임 물품공급업자들이 지닌 여러 어려움이나 기본 업무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수반되었다. 새로 정해진 물품공급업자는 전임 물품공급업자가 대대에 공급했던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품을 대 주었다. 처음에는 뿌짜따 대령이 정부가 정한 공급가격이 15센트라 하여서 그에 따라 할당량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탁지부 고문인 영국인 브라운(J. Mc. Brown)이 사병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공급가격이 10.5센트이므로 그 이상은 정부 허락없이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교관단은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어 병사들에게 지급될 공급물품 가격을 13센트로 올려 공급가격을 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물자를 공급하기 전날 대대본부에서 대대장과 신임 물품공급업자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마치 대대장이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그려지자, 대대장은 신임 물품공급업자가 전임자로부터 청부계약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대대장의 수입마저 앗아간 것이 아니냐고 소리쳤다. 당시 대대 당직자로 온 러시아 상사(정교)는 겨우 싸움을 중지시켰다.

이때 대대 당직자인 러시아 상사(정교)가 매일 물품공급업자를 감시할 사람으로 임명되었고 조선인 당직 장교가 그를 돕도록 하였다.

대대의 모든 경상비용은 나의 서명이 있는 수요청구서에 따라서 지급되었다. 대대장은 대대의 운영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으며, 교육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

13) 미국 군사교관단(William Mc. E. Dye, Edmund H. Cumins, John G. Lee, F.J.H. Nienstead)은 이미 1888년 4월에 들어와서 6월부터 훈련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1889년까지 조선의 근대식 사관학교인 鍊武公院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1889년까지 조선군 간부 육성에 노력하게 된다.

문이었다. 실제로 그는 대대에 겨우 몇 번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결산은 내가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했다.

부사졸과 장교들에게 지급될 급료(50-30센트)는 지체없이 군부대신에게 모두 요구하였다. 부사졸들에 대한 급료는 우리가 배석한 가운데 중대본부에서 지급되었고 부사관 교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지급명단에 지급표시를 한 장부를 작성하였다. 병사들 사이에는 기쁜 마음이 오랫동안 남았으나 고관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은 급료를 남김없이 지급했다는 사실과 기존에 실시하지 않았던 지급장부가 작성되었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모든 이들은 조용해졌고 양반들은 새로운 시도에 익숙해졌다. 그들의 수중에는 아직도 5개의 대대가 있어 예전의 방식대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보름이 지난 후 13센트로 지급하는 것이 완전히 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물품에 대한 낮은 가격 덕분에 많은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마련되었던 식사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지난 한달 간은 매우 힘들게 지내야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서는 식사가 경제적인 가격대로 전환되게 되었다.

모든 경제는 차츰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꾸지민 중위에게 부대 경영을 담당하도록 맡겼다. 물자는 중대장의 서명에 따라 요청된 항목을 물품공급업자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상사(정위)가 납품된 물건의 양과 질을 검사하였다. 물자는 러시아 당직 상사(정위)와 중대별 당직자들의 배석 하에 병참부 부사관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들은 수령한 물자를 큰 그릇에 담아 놓았다.

중대별 당직자들은 취사장에 걸린 물품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러시아 상사(정교)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규정된 대로 실행되었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중대장들이 분주히 우왕좌왕 뛰어 다녔으나 많은 양의 목록을 다 점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익숙해져 모든 일이 순조로이 지나갔다. 꾸지민 중위는 매일 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점검했으며

나는 매월 말에 검사하였다.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예산은 수령하면서 장부에 기록하였고, 각 중대에 배정해 주면서 기록하였다. 중대장들은 꾸지민 중위가 배석한 가운데 화폐의 일부로서 물품을 5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받았다. 중대장들은 선불금으로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본 은행에 직접 가서 자기 중대의 고유한 장부에 따라 지급받았다.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비가 오거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8월 15일 이후부터 9월 1일까지는 무더위로 인해 아침 5시에서 8시 사이에서만 교육이 진행되었다.

소대가 분산될 전호선(рассыпание взводов в цепи)이 지정되었고 산개될 대오의 임무가 설명되어졌다. 병사들이 연병장(на плацу)에서 어느 정도 서로를 익히게 되자 9월 말쯤 다시 대오 산개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른 아침에 5베르스타 거리의 야외로 나가 학습을 실시하였다. 중대장은 이제 익숙해져 독자적으로 이를 지휘해 나갔다.

지난 6월 1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세명의 중대장이 바뀌었다. 아마도 이들은 대대 근처에 거주할 수 없어서 정부군으로의 전출을 희망했던 듯하다. 10월 1일부터는 교육이 계획표에 따라 진행되었다. 대오는 이제 완전하게 갖추어졌으며 중대장이나 장교들은 잘 교육받은 덕분에 모두가 훌륭히 습득하게 되었다. 부사졸들은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부사관들 역시 학습내용을 매우 잘 알아들었고 엄한 규율에 복종하면서도 근무 수행에 있어 모범을 보여주었다.

취사장 담당에 따른 당직자가 매일 부사관 중에서 임명되었다. 부사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은 모두 조선어로 번역되어 건물마다 걸어놓았다. 2대의 재봉틀을 구입해서 매트리스나 베갯잇 그리고 넓은 바지 등을 수선했다. 재봉 기술을 익힌 부사관(정교) 코베르니코프(Коверников)는 5명이 일하고 있는 재봉소를 관리하였고, 부사관(정교) 말리셰프(Мальшев)는 의자 등 가구를 수리하는 목공소를 관리하였다. 사소한 수선은 하급병사들이 직

집 처리했으나 보다 견고한 작업이 필요한 것은 업자들에게 맡겼다.

1월 1일에 이르러 병영이 완전히 수리되어 외장까지 최종 마무리되었다. 판자침상(нары)은 러시아 품으로 만들었다. 대대에서는 붉은 천의 견장에 조선어의 판에 박힌 표제, 즉 “제1의 경비대대(1-й охранный)”<sup>14)</sup>를 뜻하는 “01(ен иль, 零一)”을 꿰메어 놓았다. 이때(1월 1일)부터 재봉공장이 확대되어 군인제복은 거의 자체적으로 수선할 수 있게 되었다.

장교 회합도 이루어지게 되어 장교들은 교육을 받거나 총검술을 연습하기도 하였다. 그 곳에는 칠판도 학급당 설치되었다. 장교들은 매일 이 곳에서 규정에 대한 반복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대대장을 위해서는 유럽식의 환경을 갖춘 독자적인 건물이 지어졌다. 조선인 전화 담당 당직자와 러시아 부사관(정위)에게는 별도의 방이 마련되었다.

장교 숙소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 놓았다. 모든 수리 과정은 경제적인 규모 속에서 진행되었다. 감옥이 설치되었고 식료품이나 무기를 보관할 군수 창고가 설치되었다. 제1 경비대대는 러시아 대대가 ‘양반(енбаны)’으로 불렸다.

공정한 부대 경영 덕분에 대대는 1898년 1월 1일까지 4,488 달러 96.2 센트를 절약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병사들을 위한 목욕탕 건설 부지가 마련되었다.

대체적으로 모든 대대의 명령은 나를 통해 오갔다.

비상경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장교 전원과 병사 140명으로 구성된 당직중대가 매일 임명되었고, 이 중대의 부사졸들은 아무 데도 나갈 수 없었다. 만일 군부대신이나 군부대신의 측에서 있던 인물들의 방해만 없었더라면 모든 일이 훨씬 훌륭히 진행되었을 지도 모른다. 모든 성과나 개

14) 고종이 환궁한 이후 1897년 3월 그는 조칙을 발표하여 러시아군사교관이 양성한 훈련대를 시위대로 명명하였다. 이 시위대의 주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궁궐수비에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1, 제2 경비대대는 시위대를 의미한다.

선점은 반드시 어려운 수고를 겪은 후에 이루어졌다. 1896년 10월 9일부터 1898년 1월 1일까지 벌써 다섯번째 군부대신으로 일하고 있는 이창근(Иван-Гыш)은 과거에 근거한 무질서를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군부대신은 교관들이 대대 내에 내무질서나 공정한 재정운영을 도입하려는 것에 찬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장교들에게 러시아 교관들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부당하게 불러일으켜 교관들의 권위를 훼손하고자 하였다.

아파나씨에프 1세(Афанасьев 1-й)

### (3) 제2진 군사교관단의 교육과정(занятия 2-й партии инструкторов)

러시아 군사교관단 제2진은 7월 17일 밤 11시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 다음날 교관단은 뿌짜파 대령을 만났고 러시아 공사를 찾아보았다.

뿌짜파 대령은 예전과 달리 교육방식에 대하여 조선인 군사 관리들과 협의를 나눌 것이라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당분간 러시아 교관들은 모든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시간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1경비대대에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이었다.

6월 25일 뿌짜파 대령은 우리 교관들에게 자신을 군부 소속의 대대에서 제2경비대대(2-ой охранный батальон)를 구성할 병사들을 선발기 위해 동행하자고 제의하였다. 당시 조선 군부 소속의 5개 대대에는 모두 600명의 인원이 보이지 않았다. 새로이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리는, 러시아 공사의 바램대로, 훈련병 양성사업을 견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병사가 다 충원된 대대를 구성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인원선발은 매우 우스꽝스러웠고 이상하게도 보였다. 조선군의 책임자들은 이 부대 저 부대의 인원을 이 병영에서 저 병영으로 이동시켜 갔다. 그

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대대의 인원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도록 하고자했던 것이다. 뿌짜따 대령은 새로운 인원 선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중지시켰다.

이틀째 혹은 삼일째 되던 날 인원 선발을 끝낸 후 군부대신은 제2경비대대가 구성되기도 전에 모든 대대가 교육을 곧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5개 대대를 모두 교육시킬 수는 없었다. 대대병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교관조차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는 군부대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뿌짜따 대령이 급히 페쩨르부르크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의 대대 구성사업은 중위 아파나씨예프 2세(Афанасьев 2-й)<sup>15)</sup>가 도착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하였다.

현실적인 여건과 요구사항이 고려되어 우리는 9월 12일 일시적인 사업이지만 조선군 제4, 제5대대에서 훈련받은 인원을 선발하도록 주문받았다. 우리가 선발작업에 나섰을 때 장교들은 사람들을 모집하지 못했다. 우리가 비록 바로 전날에 임시 군부대신인 남정철(Нам тен-тер)이 현재 대대장교들이 없고 군부로부터도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작업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훈련병을 선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우리는 대대에서 나와 되돌아 왔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나씨예프 1세가 러시아 대리공사(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와 국왕에게 우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그러자 9월 15일에 제4, 제5대대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우리의 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국왕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 날짜(9월 15일)를 기준으로 조선 군부는 대대에서 선발될 인원 에 대한 예산 장부를 작성하였다. 9월 15일 위에 언급한 대대에서 인원 선발이

15) 다른 문서에서 더 확실히 봐야겠지만 아파나씨예프 1세의 오기인 듯 하다. 여기에 번역되고 있는 원본의 제3부는 제2진 교관단으로 파견된 그루진스키가 작성하였는데 본인으로서도 혼동하여 쓰고 있다. 원본 본문에 따라 1세와 2세를 혼용해 적었지만 역자는 1세로 이해한다.

실시되어 제1대대와 제2대대에서 16명이 선발되었다. 무엇보다도 선발된 인원을 직접 검사한 결과 제4대대와 제5대대의 인원 664명과 665명 중에서 각각 400명과 450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인원은 출장을 떠났거나, 더 심증이 가는 것은 이들이 아예 대대에 존재하지 않고 단지 급료나 물품을 지급받기 위한 ‘죽은 영혼(мертвые души)’들로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대대구성 인원은 <표 8>과 같았다.

군부가 미리 말해 주기도 전에 제4대대와 제5대대에 있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제1대대와 제2대대에서도 역시 부대원이 부족한 사정임을 파악한 우리는, 비록 신병에게 요구할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곳에서) 필요한 선발 인원 모두를 제2경비대대의 훈련병으로 뽑기로 하였다.

대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적합한 병사들은 군의관 체르빈스키(Червинский)가 정해 주었다. 선발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병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선발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찡그린 얼굴을 짓던지, 환자나 노인 행사를 하던지, 심지어는 대오에서 이탈하여 도망가기도 하여 이들을 병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대대에서는 겨우 571명만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3개 중대를 구성하여 2명의 부사관급 교관을 배정해 주었다.

<표 8> 대대 구성인원과 이에 따른 예산

대대구성	장부 인원	출장 인원	대열 이탈	선발 인원	잔류 인원	도주 인원	나머지 대대인원	
							장부인원	실제인원
제1대대	667	302	365	204	161	-	302	161
제2대대	664	284	380	216	169	-	284	164
제4대대	664	264	400	282	88	30	264	118(88+30)
제5대대	665	265	400	289	111	-	265	111
계	2,666	1,115	1,545	991	524	30	1,115	554

9월 16일, 제1대대와 제2대대에서 인원을 선발하였다. 제3대대에서는 선발하지 않았는데 이 대대는 출장 임무를 갖고 있어 조선인들이 이 대대 인원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언급된 대대에서는 15일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조건 속에서 745명 중 420명을 선발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든 희망사항과 신병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발한 결과 991명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 숫자에는 나이 어린 나팔수 부사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제4대대와 제5대대로부터는 (이 대대의 병영은 제2경비대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다. 이는 제4대대와 제5대대에 남은 많지 않은 인원을 병영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는 우리의 의도를 성취시키기 위한 계약이었다.

선발 과정에서 부사관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군부대신이 된 이창근(Иван-Гин)이 부사관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사령본부에 잔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9월 17일 교육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인원들을 중대별로 나누었고 각 중대는 200명으로 구성되었다. 중대별로 한 명의 러시아 부사관 교관이 임명되었고 그를 돕기 위해 제1경비대대에서 중대별로 2명의 조선인 부사관이 배치되었다. 제2대대의 부사관은 특별부대로 분리되어 러시아의 학습과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부대로 제1경비대대에서 가장 유능한 조선인 상사(정위)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위 아파나씨예프 2세(Афанасьев 2-й)가 담당하였다.

장교들 학습은 나다로프(Надаров) 소위에게 부여되었다. 나 역시 제2대대에서 진행되는 모든 학습과정을 지켜보고 재정문제를 담당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병영에서 나오기에 앞서서 제4대대와 제5대대의 병영에서 학습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에는 하루종일 병영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녁 학습시간에는 거꾸로 자신의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기 전 우리는 처음 몇 날을 중대 명단을 작성하고 조선인 부사관을 중대별로 나누며 병사들의 외모(의복, 두

발, 특히 단발을 강요할 수 없어서 병사들에게 장발이 왜 본인에게 안 좋은지를 설명했지만 그 후에는 부대에서 나가던지 아니면 상투를 자르던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를 단정하게 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을 검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부사관들이 지나치게 모든 점에서 병사들에게 많은 양보를 한다는 것이었다. 것처럼 기이한 상황에 대하여 조선인들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군부 내에 지독하게도 나쁜 뇌물수수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 12달러 까지,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사관의 군대 임무수행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많거나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규모의 뇌물을 지불해야 하였다. 장교들 역시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뇌물을 지불하였다. 이제야 명백해진 일로써, 어찌하여 군부대신이 부사관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는지를 알 것 같았다. 만일 이들을 멀리 내보내야 할 경우에는 앞서 받았던 뇌물을 되돌려 주어야 했다.

9월 20일 경에 마침내 군부는 제4대대와 제5대대의 병영을 제2경비대대에 내주었다. 정부군 대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그 곳에 우리의 제2대대와 제3대대의 중대가 들어갔다. 병영을 내어주는 조치와 동시에 최종적으로 제2경비대대의 장교들이 임명되었고 대대장에 신상군(Син Сан-гюн)이 임명되었다. 병영을 넘겨받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큰 병영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병사들이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병사들은 다른 대대에서 빈둥거릴 수가 없게 되었으며, 중대는 모두 함께 있게 되어 우리 부대의 규정에 정해진 내무 규율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자신들의 통제 하에 경제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대의 독자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대에는 10명의 통역자들이 파견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유용한 결과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거의 엉터리로 구사했으며 심지어는 러시아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들 통역자들은 남부지방의 언어와 매우 상이한 북부지방 출신들이어서 다른 지방에서 온 병사와 서로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다. 이들 통역자들보다도 기존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들이나 제1대대에서 파견된 보조자들의 얼굴표정이나 몸동작이 더 유용하였다.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이 시작된 것은 10월 1일부터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1대대가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제2대대 교관들이 마련한 것인데, 학습과정과 젊은 보병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1898년 2월 1일에는 모두 끝마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군대는 국왕의 자제가 태어난 날, 황제 등극일, 1895년 일본인에 시해된 왕비 장례일 등 조선의 많은 명절이나 기념일을 주목하면서, 경호를 위해 군대가 동원되던가 혹은 며칠 간의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차후로 미루자고 요청하였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대대는 젊은 병사들의 교육을 2월의 7/19일까지 가서야 끝낼 수 있었고 중대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2월 17일 대대가 대문에서 외부 초소를 차지하게 되었다.

1897년 10월 1일부터 대대는 병영에 위치해 있는 건물을 따라 분산 배치되었다. 각각의 중대는 24 내지 30 칸의 방(방은 1 1/2 입방 사첸)을 차지하였다. 상사(정위)는 독자적인 한 칸을 차지하였고 중대 서무행정 부서 역시 독자적인 방을 소유하였다. 부사관은 자기 소대와 분대원들을 칸별로 돌보느라 녹초가 다 되었다. 날마다 중대의 당직자가 비상경보 사태에 대비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이 때 경비근무는 부사관 입회 하에 궁궐 내곽 경비(домашний караул)로서 대문 쪽과 감옥 그리고 탄약고 등 세 곳에서 수행되었다. 당직 장교는 대대별로 두었는데 이들은 경계경보 사태시 궁궐로부터 끌어올 전화기를 담당하였다. 대대별로 당직 상사(정교)가 임명되었고 식당별로 당직 부사관이 임명되었으며 각 중대별 당직 부사관과 4명의 보초병을 두었다. 대대에서는 매일 러시아인 당직 부사관이 임명되어 2명의 통역자가 배정되었다. 내부 규율은 러시아 교관단의 규정에 따라 매

우 엄격히 실행되었다.

대대의 급식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형태에 근거했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갖춰진 형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열악한 음식을 제공받은 것이며 그 양도 적었다. 육류는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2달에 한 번 꼴로 대대별 80센트 분량의 뼈를 고아 끓인 국이 제공되었다. 훌륭한 식사가 제1경비대대에 제공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모든 대대에 제공된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집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나는 매일 육류식품이 끊여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편중된 배급상태에 대한 논쟁을 거듭한 끝에 육류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나 형편없는 양이었다. 대대장은 좀더 나은 급식을 제공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상황에 직면하자 부대 경영권을 중대로 넘기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일일 장부와 식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임명했다는 설명이 있게 되자, 부대 경영권이 러시아 장교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대 경영 권한이 중대로 넘어가기 전날, 군부가 더 이상 경비를 선불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11월 1일부터 경영권을 갖는 것은 거절될 것이라고 발표해 버렸다. 결국 이 문제는 1월 1일까지 연기되었다. 그리고 이 연기된 날에 대비하여 1898년도 대대에 필요한 경비(여기에는 장교, 하급병사의 급료, 급식비, 말 사육비, 건물 수리비, 필수생활비, 의복비 등이 포함되었다.)는 181.004달러 50센트가 지출될 것이며 그 경비도 단지 기존에 요청되었던 비용이 올바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나의 감사결과에 따라서만 지급될 것이라고 규정해 버렸다. 이렇게 하여 신력 1월 1일부터는 재정권이 우리의 통제로 넘어오게 되었다.

제1경비대대는 새로운 근거에 따라 경제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500달러를 대부해 주었다. 그런 연후에 취사장 건축이 착수되었다. 기존의 취사장이란 병영 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서 취사장이라기보다는 임시 설치된 화덕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월 1일부터는 쌀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제1대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물품공급업자가 제공하게 되었고 쌀

은 중대장이 순번으로 시장가격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물품 할당 명단도 작성되어 모든 대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할당량에 따라 병사들은 매일 2/3푼트(фунт)<sup>16)</sup>의 육류와 1 2/7푼트의 쌀(절반은 중국산), 큰 3사발의 배추김치(발효된 조선배추), 자그마한 생선, 콩, 차 등을 제공받았다.

급식이 만일 쌀 대신에 빵이 제공되었다면 러시아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로는 완벽했을 것이다. 국은 하루에 두 번 끓여 나왔으며 점심과 저녁의 식단은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중대장은 장부정리와 물품명단 작성 그리고 병사기록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매우 신속히 익혔다. 중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한 비용은 특별 부서에서 맡았다. 모든 중대 평가 기록은 조선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형식은 러시아 군대의 규정에 따랐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독특한 글자에 따라 일정정도의 변화는 있었다. 그 글자 기록 형식은 제1경비대대의 것에 준용하였다.

중대장은 제 때에 물품공급업자로부터 물품과 장작을 구입하는 것과 순서가 닿았을 때 쌀을 사는 임무가 있었다. 중대운영에 필요한 필수품은 나의 허락을 받아 바로 해당 중대장이 구입했으며 나의 검사를 받았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중대장에게는 군수품에 대한 관리는 책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복 외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군복이 상이한 사용연한도 없이 1년만 제공되었으며 장부에 기록되었다. 1898년에는 어느 것도 새로 입수된 것은 없었다. 중대장들을 믿고 통제되지 않은 비용을 그들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 중 몇몇 중대장은 문자해독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부 기입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중대장들은 새로 구입된 물품이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꺼리지 않았으며, 과거에 한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지출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이 물품을 구매하고 가능한 한 구매한 가격을 올바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대대장은 부대 운영권이 러시아 교관의 통제로 넘어가자 모든 의미를 상

16) 옛날 러시아의 중량단위로서 0.41kg 정도이다.

실하였다. 그렇게 되자 대대장은 교육의욕을 상실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질 않았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란 군부 관청과 더불어 대대에 대한 필수보급 물품 목록을 작성하는 일과 러시아 교관단의 지시에 따라 부사졸을 부대에서 제외시키거나 부사관의 행정업무와 장교의 수행 업무 내용을 끊임없이 작성하는 일에 매달리기 혹은 자신들이 필요를 못 느끼면서 희망도 없이 근무하는 것에 있었다. 대대장은 부대 운영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추후 경비지출 명령은 나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당직실과 행정실 등에 필요한 경비는 선불을 받을 수 있는 순번의 중대장이 받았고 그 사용은 중대별로 분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대대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중대는 모든 필요물품을 중대에 배분된 경비로 구입할 수 있었다.

운영권자로부터 받은 경비는 중대별로 일본은행에서 당좌계정(текущий счет)으로 제공되었다. 예금인출은 내가 서명한 증서에 따라 지급되었다. 제2경비대대의 중대는 1898년 1월 1일부터 받은 경비가 모두 1,709달러였다. 이 부대운영 비용은 완전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며 군장품이나 병영 상태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경비로 쌀을 유리하게 살 수 있었으며 물품공급업자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었다.

아침 교육시간에 장교들은 중대에 남아 있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명령에 대해 연구했으며 큰 만족을 갖고 자기의 소대를 지휘하였다. 저녁에는 독립된 교육시간에 장차 대대 내에 결성될 장교급 대대회의에 참석하였다.

모든 장교들은 대열에서의 자기 지위를 알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졌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교들은 부사관(унтер оф.)들보다는 못했는데 일부 장교들 사이에서는 군복무를 싫어하거나 자신의 임무에 따른 부담과 업무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행군시간을 두었다. 대체로 대대는 3 내지 7베르스타

거리 정도를 행군하였다. 모든 장교들이 행군에 참석하였으며 교관들 역시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오를 지어 행군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산책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관찰하기 위해 참석하였던 것이다.

장교들에 대한 (대우의) 평등한 측면을 언급하자면 부사졸의 형편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적 발전이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개인이 지닌 장점에 대한 느낌은 서로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불손하고 뻔뻔한 절도행각이 있어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했으며 뇌물수수, 거짓과 기만 등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닌 특성처럼 나타났다.

장교들이 교관들에 대하는 관계는 의견상 훌륭한 것이었다. 부사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차갑고 심지어는 충격적이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을 한발로 서 있게 하는 (벌을 주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우리를 우리 부사관들과 조선인 장교들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러시아 장교들은 교육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었다. 그 후에는 우리 러시아 부사관들이 조선인 장교들을 책임자로 대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 결과 조선인 장교들은 급속히 만족스럽게 우리 부사관들과 가까워졌다.

우리의 병영이 군부 근처에 위치한 관계로 처음에 우리는, 군부가 여러 요구사항들을 이행할 병사들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병사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군부에 병사들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거절을 몇 번 한 이후에는 이런 여러 요청사항들이 중단되었다.

그 후 군부대신은 국왕의 의식 행차에 관련하여 오랫동안 행사해 오던 대대법령에 규정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중대를 어디로 보내고 어떤 규율 속에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군부대신이 지시한 질서란 무질서나 마찬가지였다. 아파나씨예프 1세 중위가 국왕에게 강력하게 보고한 덕분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최근에는 어느 한사람도 군부대신이 우리의 동의를 얻지 않

고서는 대대에서 병사들을 차출해 갈 수 없었다.

지금까지 쓸모가 약한 50정의 선조총이 있었다. 어떤 것은 멜빵이 없거나 자루나 혁대 등이 없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현실적인 요구를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지급받았다. 다른 군장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우리의 통제 하에 부대 운영권을 넘긴 군부는 대대로부터 돈을 벌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1년 반 동안 러시아인들이 부대 경영을 맡은 이후로 순수하게 절약하여 보유하게된 돈이 1,500달러(1,709: 매달 수령한 액수 - 역자) 이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절약된 비용 모두가 군부로 흘러 들어갔다. 병사들은 더욱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했으며 중대 자산 역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이다. 제2대대 역시 러시아인들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로 군부와 군부 관리들의 호주머니는 또 한번의 큰 충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N. 그루진스키이(Н. Грудзинский)

주제어 : 주한 러시아군사교관단, 제식훈련, 총검술, 사격술, 훈련대

КСИ

<ABSTRACT>

Material Exploration :

“The Russian Military Instructors in Korea(1896-1898)”

Sim, Heon-Yong

This report is on the Russian Military Instructors(RMI) and their activities from sep. 1896 to mar. 1898. The RMI with the head of D.V. Putyata, composed of 26 officers and noncoms, arrived in Korea twic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in oct. 1896 and the second in jul. 1897. It was written by two captains of the training battalions for palace guard (Afanacyev the first and N. Grudzinskiy), who returned Khabarovsk, the Imperial Russia, their fatherland, and reported to the General Headquarters of Far East, Russia.

This report, which has been preserved in the Russian State Archives for the Military Historical Documents, consists of three chapters; ① the Korean Army before the training by the RMI, ② the context of education by the Russian instructors, ③ educational courses of the second group by the Russian instructors). But I translated the latter 2 chapters of the report,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RMI in Korea.

Generally speaking, in Korea researches on the activities of the RMI have been continuously introduced, and have been showing not only simple descriptions about the activities the RMI, but specific analyses, based on the primary sources provided by Imperial Russia and Great Britain.

Nevertheless, there has been something to be desired in introducing the more concrete facts about the RMI, in the form of reports, diaries, notes

and other related documents, worked by the instructors themselves. Therefore, this translated material would help not only supplement the insufficient part of historiography, but open the new historical facts, and arouse the fresh resonance.

This translated report shows the presence of internal drill manual and regulations in Korean and the concrete activities of the RMI -- how to educate close-order drill, the operation of the rifle, a sighting shot, the regulations for sentry of the palace for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alace guard units.

But as the report is based on the individual note, there are contradictory facts and data for debate. For all that, of course, the value of the report will not get damaged.

Key Words : The Russian Military Instructors in Korea, Close-order drill, An operation of the rifle, A sighting shot, The training battalion

K C I